



WCC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제10차 총회 안내책자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2013. 10. 30(수)~11. 8(금) 부산 벅스코(Bexco)



한국기독교장로회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인사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내가 볼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1-4)

‘생명·평화·정의’의 하나님께서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힘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역사에 동행하셨고,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고난의 세월도 함께 해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김재준 목사님께서 글로 남겨주신 ‘생명·평화·정의’의 사명이 오늘 날 절실하게 뼈 속 깊숙이 새겨지며 행동하게 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 WCC 제10차 총회 준비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음을 믿으며, 5월 19일 성령강림주일을 ‘한국기독교장로회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위한 기도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이 기도주일을 위해 예배자료와 WCC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자료집을 보내드리오니,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WCC 준비에 불을 붙여 주시고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새역사 60주년’을 맞아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땅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운행하시기를 바라며, 평화통일을 염원하여 정전협정 60주년, 평화협정 원년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WCC 제10차 부산총회 주제가 기장인의 삶에 구체적인 몸짓으로 이루어지도록 WCC 회원교단들과 연합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라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냈던 섬김을 WCC 제10차 부산총회와 그 이후에도 지속하려고 합니다. 무릎기도, 눈물기도, 금식기도와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생명·평화·정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힘을 불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 태 진

인사말씀	3
목 차	5
일정 및 프로그램	별지참조
예배자료(예배안, 설교자료)	8
세계교회협의회(WCC)는?	32
세계교회협의회(WCC) 로고의 의미와 WCC의 시작은?	34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은?	35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형성과정은?	36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회원교회는?	38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비전은?	39
세계교회협의회(WCC) 역대 총회의 주제와 장소는?	41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의 개요와 의의는?	43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의 의미는?	45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개최지 교회로서의 희망과 사명은?	46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세계, 아시아, 한국에 끼친 영향 및 공헌은?	47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오해와 진실	53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 관련 자료 소개	56

세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입니다.

문서번호: 제97회총회-360-특별위-15

2013년 4월 19일

수 신: 노회장, 서기

참 조: 노회 총무

제 목: WCC 제10차 총회 참가방안과 참여신청에 관한 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WCC기장준비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WCC 제10차 총회개회(주제: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통해 '정의 평화 생명'의 결실을 맺고 세계교회와의 연합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협력해주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I.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도 주일(각 교단별 자체 기도일 지킴)

- 1) 일시: 2013년 5월 19일(성령강림절) 주일예배
- 2) 내용: 예배문 등 포함한 WCC자료집과 홍보영상은 총회홈페이지 5월 초 발송/게재 예정입니다.

II. WCC 사전대회

- 1) 일시 및 장소: 2013년 6월 10일(기장세역사 60주년 기념예배시) / 한신대 신학대학원, 한신대
- 2) 홍보 및 설명: WCC 제10차 총회 홍보영상/ PPT자료

III. 참가등록 및 비용 안내

1. 전체기간 **정식참여**: WCC 본부에 등록
 - 1) 비용: \$400(총회자료, 기념품 포함)
 - 2) **사전등록 필요: '에큐메니칼 대화', 오전 성경공부 소모임**
2. **일일방문등록**: 한국준비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원칙(총회본부 해당부서에 신청가능 조정 중 입니다.)
 - 1) 비용: 1만원(단체 일일방문 등록비용 추후 합의 예정)
 - 2) 기념품(가방), 총회관련 기초자료 포함/ 총회 정식자료 포함 안됨(WCC서점에서 현금가 구입 가능)
 - 3) 방문은 11월 2일-3일 주말프로그램 **제외한 다른 날짜들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4) **마당전시회장 모든 행사는 출입·관람·참여 가능('에큐메니칼 대화', 성경공부 소모임 참여 제한)**
 - 5) **일일방문자: 한국인은 500명** 정도로 제한 가능

IV. 숙식 시설 안내

1. 노회와 교회가 방문할 때 부산노회 협력으로 숙식시설을 착한가격으로 연결해 드리려 노력합니다.
2. 총회연결 **숙박** (백스코근처) / **식사**
 - 1) **신청마감: 2013년 5월 15일**
 - 2) 2인 1실 기준: 90,000원(인원추가비용 차후 논의)
 - 3) 하루신청 인원: 80명(선착순 마감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4) 노회가 백스코에서 떨어진 지역의 숙박장소 찾기는 근처지역보다 수월하리라 예상됩니다.
 - 5) 호텔은 단체 선예약, 장기숙박예약 힘들어 당일 직접 찾는 어려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조식(숙식호텔7,000원선)
 - 7) 점심(백스코주변식당, 백화점, 식당가 다양한 가격 이용)
 - 8) 저녁(자유선택, 총회가 연결 가능, 해외교단과 접견저녁식사 1인 2만원 정도 예상)

V. 문의: 국제협력선교부(서영전도사 전화02-3499-7611, 팩스02-3499-7630, prok3000@chol.com)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 태 진

WCC총회 기장준비위원장 강 용 규

(직인생략)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 기도주일에 대한 안내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라는 주제 아래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130여년의 짧은 기독교의 역사를 지닌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선교사들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며 한국교회도 WCC 부산 제10차 총회로 모이는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2013년 5월 19일(성령강림절) 주일예배**를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위한 기도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WCC 제10차 부산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 교회가 **2013년 5월 19일 성령강림주일**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각 교회에서는 WCC 제10차 총회를 위해 아래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월 14일(주일)을 WCC 총회주일로 지키고,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우리와 같은 주일인 5월 19일(성령강림주일)을 WCC 총회주일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도주일을 위해 필요한 예배자료, 기도문, 예배용 동영상, 설교자료, 성경공부자료, 포스터제작, 현수막용 컴퓨터파일 등의 실무를 국내 WCC 회원교단들이 연합하여 준비하였습니다. WCC 부산총회가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 기도제목 -

1.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위하여
2.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정전협정 60주년, 평화협정 원년을 위하여)
3. 선교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4.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5. 세계교회협의회 10차 부산총회가 성 총회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 WCC 총회주일에 사용할 자료는 총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각 교회와 노회 및 모임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WCC 주일 예배안, 설교자료, WCC 홍보 동영상, WCC 소개 PPT, 학술 및 기타 자료 포함)

한국기독교장로회,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 기도주일 예배자료

WCC 부산총회 기도주일 : 2013년 5월 19일 (주일, 성령강림절)

기도주일에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래의 예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WCC 10차 총회가 성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예배입니다. 각 교회와 현장에 맞도록 순서를 선별,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 제10차 부산총회 주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예배기조

- ①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며 총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하심을 경배합니다.
- ② 총회를 통해, 생명 정의 평화(JPIC)의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기를 (Missio Dei) 소망합니다.
- ③ 부산에서 개최되는 10차 총회가 성회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④ 교회의 생일인 성령강림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세계교회의 선교사역을 생각하면서, WCC 부산총회의 의미를 새깁니다.

구성적 기조

- ① 리마예식서와 정신을 함께하는 기장 ‘희년예배서’의 예배모범을 근간으로 구성.
- ② 기장 총회의 JPIC 사역내용을 소재로 삼음.
- ③ WCC 10차 총회 공식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세계선교와전도위원회CWME)의 내용을 예전화 함.

WCC 10차 부산총회 기도주일 예배 (성령강림절)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표 순서는 일어서서)

■ 모임 ■

입례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9장)’ _ 함께

또는, ‘찬송하는 소리 있어(19장)’

예배부름

인도자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7,10)

회 중 : 아멘.

인도자 : 오늘 교회의 생일인 성령강림절에, 세계교회협의회 10차 부산총회를 위한 기도주일로 지키면서, 교회의 소명을 되새기도록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생명의 충만함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회 중 :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소서.

(타종 :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여 3타)

송 영 _ 성가대

기 원

인도자 :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영원히 우리 생명의 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회 중 : 오,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평화로 이 땅의 온 생명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한 저희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더불어 소통하고 의존하며 살도록 만드신 주님의 생명의 그물망을 파괴하며 살아온 것을 이 시간 참회하오니,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돌이켜 주님의 의를 간구하는 저희를 더욱 겸손한 자들로 다듬어 주시어, 세상에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이시여!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도 충만히 임하시어 교회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사,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으로 기도드린다.)

자비송 _ 성가대

용서의 확산

인도자 :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 103:12-14)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회 중 : 아멘.

***경배찬송** (일어서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182장)’ _ 함께

또는, ‘미리암과 여인들이(100장)’, ‘보아라 저 하늘에(247장)’

■ **말씀** ■

오늘의 기도 _ 말은이

기도송 _ 성가대

구약성경봉독 ‘이사야 42장 1-9절’ _ 말은이

1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

신앙고백 ‘사도신경’ _ 함께

중보의 기도

인도자 :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기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충만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의 결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생명은 영원토록 교회가 행할 선교주제이며 생명의 온전함이 곧 구원입니다. 병든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치유되고 온전해지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송 _ 성가대

인도자 :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충만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탐욕의 바벨탑을 쌓는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 생태적 부정의가 사라지고, 약한 이들의 편에서 평화의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도록 소망합니다.

자비송 _ 성가대

인도자 : 오늘날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도록 간구합니다.

자비송 _ 성가대

인도자 :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의 감수성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며, 이웃을 기쁨으로 환대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자비송 _ 성가대

인도자 : 세계교회협의회 10차 부산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를 위하여 일하고, 생명 정의의 평화를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모이는 이번 총회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협조하는 한국교회에 축복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송 _ 성가대

또는, 주제별 특별기도

1.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위하여
2.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정전협정 60주년, 평화협정 원년을 위하여)
3. 선교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4.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5. 세계교회협의회 10차 부산총회가 성 총회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 보냄 ■

평화의 인사

집례자 :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준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빕니다.

회 중 : 또한 목사님과 함께하시길 빕니다.

집례자 : 아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 :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위에 있는 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

봉헌사 _ 집례자

집례자 : 우리의 삶과 수고의 결실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봉헌찬송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211장)’ _ 함께

봉헌기도 _ 말은이

또는,

집례자 : 주 하나님,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귀한 자리에, 저희가 마음과 뜻을 모아, 떡과 포도주, 그리고 주님께 드릴 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꺼이 주님께 바치오니, 주 성령이시여, 이 예물을 성별하시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여 주옵소서.

회 중 : 주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어, 주님의 귀한 일에 써주시고, 우리 가정들 위에 건강과 평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 내려 주옵소서. 여기 떡과 포도주를 저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뜻을 위

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찬송** (일어서서) ‘어둔 밤 마음에 잠겨(582장)’ _ 함께

또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463장)’

***파송사** (일어서서)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품고 있는 선교의 소명입니다. 선교는 천지창조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회 중 : 아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소서!

***응답송** (일어서서) _ 함께



***축 도** (일어서서)

***송 영** (일어서서) _ 성가대

알림과 사권

***마침찬양**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620장)’ _ 함께

또는, 아래 ‘마침노래

마침 노래

27

류형선

류형선



한 주일 동안 주-님 말씀 굳 게 굳 게 새-기 며



곳-은 날 도 흐-린 날 도 활 짝 열 어가 세 -



힘 써 섬-기는 일-터 마 다 웃음꽃만 발하 고 -



■ 대표기도문 ■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강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 온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충만의 사건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리는 저희에게 같은 은혜를 내리시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주님과 같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00교회 안에서(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줄기 강물이 되어 세상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부흥하였음을 성경의 증언으로 들은 바, 오늘날 저희는 성령강림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제도에 안주하며 교회의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본뜻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세상에서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으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에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이웃사랑으로 환대하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에 반하는 사탄의 세력이 무엇인지 영을 분별하는 능력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주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오니, 또한 우리 교회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립과 반목 안에 감추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특히 한반도위에 은혜를 베푸사 ‘정전협정 60주년, 평화협정 원년’의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올해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를 개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에 생명을 충만케 하시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모이는, 전 세계 교회들의 이번 모임이, 진실로 거룩한 성 총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 총회를 위해 한국교회가 성심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명, 정의, 평화의 선교를 한국교회가 주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인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WCC 제 10차 부산총회를 위한 기도주일 참고 설교자료 I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사 42:6-7, 롬 8:22-23, 요 6:47-51)

올해는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가 개최됩니다.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WCC 10차 회기동안 논의될 ‘생명, 정의, 평화’의 신앙고백이, 오늘 여기에서도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국교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 WCC 10차 총회를, 내용면에 있어서나 형식면에 있어서 공히,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요,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만물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우주의 섭리와 질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어 못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셨고, 땅과 그 소산으로 만물이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백성에게 호흡을 주심으로써 ‘살라!’는 명령(生命)을 하시었고, 생명의 바른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하나님은 피조생명체들을 끝까지 돌보시기 위하여 이 세계에 정의를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의’로써 백성을 부르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잡아주시어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생명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에 감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조각목과도 같고(출 37:1-2), 버린돌과도 같은(막 12:10-11)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어, 그 귀한 법궤를 만드시고, 가장 높은 머릿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자를 쓰시어 백성의 언약, 곧 교회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이방의 빛, 곧 세계의 구원을 이루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눈먼 자를 어둠에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해방시키시는 평화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 평화는 더 가지려는 풍요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피조생명체들이 온전히 그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피조세계의 구원!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참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피조물의 탄식과 울부짖음으로 하늘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피조물의 실존을 목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쓰러져가는 생태계와 함께 탄식하고 계십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는 욕망은 정의이신 하나님을 보란 듯이 모욕하고 그들의 바벨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이뤄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평화는 멀어져만 갑니다.

이와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지 못하는고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듯이, 생명 정의의 평화가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또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릴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을 깊이 성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라면, 생태계의 파괴와 사회정의의 말살과 평화세계의 훼손이 곧, 내 생명의 파괴요, 우리 교회의 말살이요, 그리스도 신앙의 훼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만방에 선포하고, 그에 합당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소명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그의 몸 안에 알짬이 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밥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밥을 먹이심으로써 우리 몸을 속량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쓰러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곧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회정의의 성취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못 생명이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해방하여 구원을 얻어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력을 온전히 꽃피우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연합하여, 함께 행동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WCC 제 10차 부산총회를 위한
기도주일 참고 설교자료 II

‘어떤 영에 속해 있는가?’

(누가복음 9:51-56)

[성경 본문 / 표준새번역]

5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52~53.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거의 900년 동안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54.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천동의 아들”(막3:17)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5~56.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에 대한 해석 : 서로 다른 영]

*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꾸짖으셨을까, 또 [뭐라고] 꾸짖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 다른 사본(KJV, 공동번역)을 보면, [뭐라고] 꾸짖으셨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 “You
 don’t know to what Spirit you belong!”

– 여기서 [왜] 꾸짖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잘못된 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 이 말에 담긴 두 가지의 잘못된 영적 요소는 이것입니다.

- ① ‘불’로 상징되는 성령을 자신들이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이요,
- ② 그 성령의 활동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해한 것.

성령까지 부릴 수 있을 만큼 자신들이 진리를 소유했다고 여기는 <배타적인 정신>

과... 이 땅을 불로 멸망시켜야지 하나님나라가 올 수 있다는 <타계적인 신앙>이 제자들의 종교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된 영”에 휩싸여 있다고 꾸짖으십니다. 성령을 부려서, 적대자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생각은 당신의 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로 두 모습의 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영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했던 행동을 압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것은 단지 무서워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을 향해 들어가는 예수님의 영을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영과 달랐기 때문이지요. 그들을 사로잡은 영은 세상에서 대적자들을 멸망시키는 영이요, 자신들이 승리(성공, 번영)을 보증하는 영이었습니다.

[다른 장면]을 하나 보시지요.

- 막 10:35~37.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저희들이 선생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 이런 소원은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대화를 듣던 다른 열 제자가 화를 냈습니다.)

- 이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시고, 고난의 세례를 받겠느냐?”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실체 : 두 가지 이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한국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영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기 있는 우리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속해 있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영이 아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얻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 성령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이 세상을 파멸시키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면, 그것은 이 땅을 태워 없애버리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은 <세상을 죽이는 영>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영>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믿는 사람에게만 번영과 성공과 축복과 영생을 주는 배타적인 영이 아니라,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는 영입니다. 성령께서

는 우리 각자를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능력으로 부르시지만, 그것은 <능력대로 살라는 변영의 논리>나 <상대방을 이기고 쟁취하라는 승리의 논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고전 12:1~7)

“형제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2) 아시나 시피 여러분이 이교도였을 때에는 헛된 우상에게 매여서 우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 다녔 습니다. / (3)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마는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욕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 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 (7)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공동유익”은 영어로 [common good]입니다. 성령은 모두를 살 리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서로 자기 이익을 따라 나뉘어 싸우다 파멸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고 참된 평화가 이뤄져서, 모든 생명이 변화되 는 길로 부르시는 영입니다.

2. 성령이 세상을 살리는 영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해서, 그 영은 새로운 관계를 맺 게 만드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오순절의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하여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관계 를 맺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능력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오르는 능력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신 비로운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 님은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네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하십니다. (막1:10~11)

예수께서 보이신 기쁨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능력이 아니었고, 천사들의 호 위를 받는 영광도 아니었고, 돌로 빵을 만드는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 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교회의 언어로 말하자면, <구원>을 위해서라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우 리 시대의 언어로 바꿔 말하자면, 생명과 평화와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잘못 말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더 살펴보지요.

[오늘을 살리는 신앙, 생명과 평화와 정의]

김재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 1984년에 쓴 글씨가 유명합니다. 그것은 한문으로 써 진 세 글자, “생명, 평화, 정의”입니다. 이분의 삶은 성경의 정신에 기초한 고난과 가난

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앙이 그분의 영성에 기초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신앙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철학자(William James)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등장하기까지는 세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1. 맨 첫 단계에서는, ‘불합리하다’고 공격받고,
2. 그 다음 단계에서는, ‘참이긴 하지만 뻔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조롱을 받고,
3.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자신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할 만큼 중요성을 획득하는 것이지요.

한국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두웠습니다.

1)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떠나는 영으로 알았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영혼구원 :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만 알았습니다. (개신교 초기선교 기간)

2)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세상 안에서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영으로 알았습니다. (1970년대 이후)

그랬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평화, 정의”를 고백하는 신앙이 외면당하고 고난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생명에 평화를 줌으로써, 하늘에 영광을 돌린 “생명과 평화(Life and Peace)”의 복음입니다. 이 땅의 질서와 관계를 정의롭게 변화시켜서, 참된 평화인 살림을 가져오는 복음입니다.(말 2:5, 롬 8:6)

그런데 이 복음이 한국교회에서,

1. 처음에는 불합리하다고 공격당하면서 그 주장을 하는 신앙인은 고난당했습니다. 복음은 영혼구원이어야지, 무슨 생명과 평화냐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김재준 목사님은 목사직에서 제명당하기까지 했지요)

2. 두 번째 단계는 한국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교회역시 성장/번영/축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생명과 평화라는 말을 하면... 그것은 참 고상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조롱 당했습니다.

3.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시기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보다 한 발 앞서서, 세계교회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 개최, 새로운 선교문서]

금년 10월 말,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150여국, 350여개 교단, 5,000여명의 교회대표가 참석) 그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

화로 이끄소서!” 이 주제는 세계교회의 관심과 변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시대를 맞으면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교단 역시, 세계교회와 함께 발맞춰나가기 위해 금년 총회의 주제를 같은 주제로 삼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WCC 10차 총회를 준비하는 여러 그룹 가운데, [세계선교와 복음전도위원회, CWME]에서는 앞으로 세계교회를 이끌 비전문서(총 132개 조항)를 마련했습니다. 작년 3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1주일 동안 세계교회 대표 200여명이 모여서 깊이 검토하고, 9월에는 WCC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공식문서가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앞으로 세계교회가 나아갈 선교와 전도의 방향에 대한 선언이 담겨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비춰보면 매우 도전이 되지만, 세계교회가 현재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 선교는 단순히 개종활동이 아니다. 선교는 생명의 충만함을 향한 모든 활동이다. (67조)

2. 복음전파는 배타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일에 협력하는 것이다. (78조)

3. 기독교 신앙이 결단할 시기에 도달했다. 무슨 결단이나? 시장자유주의라는 황금을 택할 것인지, 정의로운 질서를 위해 신앙의 이름으로 일할 것인지. (128조)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기독교 선교의 방향은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교회가 어쩌면 영적인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영적인 지체현상이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생겨나는 이유요, 한국교회의 위기를 모두가 느끼게 만드는 실체가 아닐까요?

[비극적인 아이러니, 한국교회의 현실]

현실을 보면, 여전히 성공/번영/축복을 향한 메시지가 교회에 흘러넘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진지한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위안이나 받고, 생명과 평화를 위한 일은 교회 밖에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지한 신앙의 물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에 빠져 있어요. 회의와 실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현재의 비극은 잘 너무 알지만, 현재를 살릴 수 있는 상상력은 고갈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황은 길게 본다면 비극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물음에 정직하게 답해야만 하는 순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어떤 영에 속해 있느냐?”

[마지막 메시지 : 생명과 평화로 부활하는 그리스도를 만나자]

“우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매우 창조적인 상상력을 갖지 않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영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은 단조롭고 나쁜 풍요의 영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간직한 삶으로 이끄는 매력적인 영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며, 이 땅에서 부활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영입니다. 따라서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였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경험합니까? 세계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왜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께 “정의와 평화”를 간구합니까? / 그곳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곳이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생명의 영이 약동하여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세워진 영혼, 가정, 교회, 사회입니다. 위기를 깊이 맞고 있는 만큼, 한국의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생명과 평화의 교회를 일구기 위해 일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교회가 예수의 영으로 약동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의 안과 밖에서 생명과 평화의 복음이 약속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침 기도]

복음이 빛을 잃고, 신앙이 힘을 잃어 교회의 장래가 어두운 이 때, 우리를 향해 “어떤 영에 속해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신 주님, 돌로 떡을 만드느 기적도, 천사들의 호위를 받는 영광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에 힘입어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하고, 평화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는 생명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자유를 누리려는 의지를 권력자의 총과 칼로써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발전과 문화창조의 원동력을 “도전에 대한 응전의 법칙”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도전은 자연환경이든지 제도나 체제가든지 인간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응전하는 것이며 그런 과정을 통하여 역사는 진보하고 생명의 문화는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응전은 생명이 자유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요 투쟁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이런 투쟁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되려는 사람, 생명을 무한히 긍정하고 사랑하는 사람, 참된 해방과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유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자유와 생명을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광주 5.18의 정신은 “자유와 해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혼은 자유의 혼이요 해방의 혼입니다. 세상의 어떤 강력한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으로도 이 혼과 정신을 절대로 죽이거나 말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지역 사해 근처에는 유명한 ‘마사다 요새’가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프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주후 7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성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 제10군단에 의해 함락됩니다. 그러나 용감한 천여명의 유대인들은 멀고 먼 마사다 요새까지 쫓겨가서 로마군과 최후의 항전을 계속합니다. 빗물을 받아 마시면서 무려 3년동안이나 버티다가 토성을 쌓고 몰려오는 로마군에 의해 마사다 요새는 결국 점령당하게 됩니다. 점령당하기 전날 밤, 유대인들을 지휘했던 “엘리아살 벤 야일”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장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 산다는 것이 재앙입니다. 용감한 사람이나 겁이 많은 사람이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항복해서 로마의 노예가 되는 치욕을 당할 것입니까? 우리 아내들이 욕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 손에 칼이 있을 때에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합시다. 우리 아내와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영광스럽게 자유인으로 죽읍시다.”

결국 그들은 열 명을 제비뽑아서, 열 명이 나머지 천여명을 칼로 죽이고, 그 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뽑아서 아홉 사람을 죽이고 최후에 남은 한 사람은 자결을 했습니다. 마사다요새의 유대인들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새벽녘에 로마군이 아무런 저항 없이 마사다 요새에 올라와 보니 천여명의 시신들만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로마군인들은 비참한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자유를 빼앗고자 했던 로마군인들은 통쾌한 승리감보다는 오히려 허무한 패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참된 자유는 불의하고 포악한 권력자가 억압하거나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생명보다 존엄한 것이므로 생명을 바쳐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자유란 강한 사람이 시혜적으로 베풀어준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얻고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당신은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선택은 자유의 표상입니다. 선택이 없다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택의 자유야말로 참된 자유입니다. 나를 버려서 너를 살리는 자유, 섬김과 희생으로 공동체를 사랑과 평화와 생명이 풍성한 공동체로 만드는 자유입니다. 실로 33년 전의 광주는 이런 자유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당시 광주는 잔인한 살육자들이 잠시 물러가면서 열흘간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총기 사고나 강도나 강탈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은 광주 5.18의 위대한 정신을 증명합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탐욕스런 사재기 현상이 없었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밥과 자기의 피와 자기의 몸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던 모습은 5.18 광주 정신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그 당시에 금남로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고 5.18묘역에 누워있는 류동운 열사가 있습니다. 1979년에 한신대학에 입학한 류동운 열사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류 열사가 전남도청으로 가려고 하자, 목사님이신 부모님은 “네가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강하게 붙잡았지만 류 열사는 그런 부모님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날에 남긴 마지막 일기를 보면, 그의 비장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하여 한줌의 재가 되어 갑니다. 이름 없는 강물에 나를 뿌려주십시오”

류 열사는 비겁한 도망자요, 불의한 역사의 방관자라는 오명을 쓰고 일생을 산다는 것은 죽는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인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양심과 역사의 명령을 거부한 부끄러운 사람으로 일생을 사는 것보다는 주님의 뒤를 따라 위험과 죽음을 스스로 무릅쓴 자유인으로 22년을 짧게 살다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고통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류동

운 열사도 주님처럼 자기 생명까지 주님과 이웃을 위해 바쳤던 자유인이었습니다. 류 열사와 함께 5.18묘역에 묻힌 수많은 다른 열사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광주정신은 양심에 따라 부끄럽지 않게 살면서 추악한 권력자의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위대한 자유와 해방의 활화산으로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5.18은 역사 속에 실현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광주 5.18은 인류가 추구하는 참되고 숭고한 정신과 가치관을 장엄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광주정신은 인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민주복지사회를 이루고,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를 우리의 몫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이웃사랑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은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초기기독교시대에 “텔리마쿠스”란 노 수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갔습니다. 그는 원형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싸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텔리마쿠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인무도한 싸움을 끝낼지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검투가 계속되자 텔리마쿠스는 직접 경기장에 내려가서 또 다시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검투사가 텔리마쿠스의 가슴을 칼로 찔렀습니다. 텔리마쿠스는 칼을 맞았지만 온 힘을 다해 큰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인무도한 경기를 끝낼지이다.”라고 외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죽자 떠들던 군중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검투사들도 칼을 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빠져나갔습니다. 그 날의 검투사 싸움에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텔리마쿠스만 죽었습니다. 과연 이 수도사가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의 희생으로 인해 오랫동안 계속된 로마제국의 검투경기는 그 때부터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광주의 열사들은 독재와 억압, 편견과 증오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희생을 자원했습니다. 여러분은 광주항쟁열사들의 이런 희생을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추악한 탐욕이 스며들 때에 광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양심을 팔라는 유혹의 음성이 들리고,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라는 유혹의 음성을 들을 때에 광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태와 안일이 몰려올 때엔 광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에 사랑이 메마르고 증오와 절망이 나를 지배할 때엔 광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5.18정신을 망각하면 다시 고난을 일으키지만 광주 5.18을 잊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광주민중항쟁 33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열사들 앞에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침기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33년 전, 광주에서 병들고 불의한 역사를 온 몸으로 앓으며 죽어간 광주의 열사들을 기억해주옵소서. 유가족들과 지금까지 부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행불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웠던 열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오늘 우리가 본 받게 하옵소서. 불의와 타협하고 나태했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 민주국가가 이루어지고, 지역과 남북이 화합하여 통일된 민족을 이루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교회협의회(WCC)는?

■ 세계 만물의 일치를 위해서는 먼저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일치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WCC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은 WCC 본부가 있는 제네바 에큐메니칼 센터의 회의장에 걸린 그림인데, 가운데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시고 그 위에는 궁창이, 그 아래에는 지구가 있습니다. 땅 위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집이 보이는데 이는 각기 다른 전통을 지닌 여러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각기 달라도 모든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가족이란 뜻입니다.



WCC헌장 제1조와 목표는?

■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입니다.

■ WCC의 신학적 기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본 신앙고백과 선교봉사를 함께하는 교회들의 연합체로서 ‘다양성 속의 하나됨’(교파 전통, 지역 전통 등)을 기본 틀로 하는 ‘협의체적 일치기구’(Council)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WCC 목표는 기독교인의 일치를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많은 조직된 표현들 중 가장 넓고 가장 포괄적입니다. WCC의 목표는 세계적인 ‘슈퍼-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예배의 형식을 표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교회들과 공동체들의 교제를 깊게 확립하는 것입니다.

■ 교제의 모든 행동들은 주 예수그리스도가 “성서에 따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라는 WCC의 기본적인 선언에 대한 증언을 부여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에 의한 협력과 나눔, 그리고 공동의 증언과 행동을 장려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특별히 여성과 청년 가운데 활동과 네트워크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WCC의 사업영역은?

■ WCC의 기본 협력사업 내지 관련 부서 기능을 다음과 같은 6개 영역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 1) 교회일치, 선교, 복음화 및 영성 개발사업: 공동체-인종차별/원주민/이민, 외국인 노동자/달릿/장애인/세계신학 등 관련
- 2) 평화, 인권, 복지사업:
 평화: 정의-핵 없는 세상/무기수출/유엔연락사무소/갈등해소/원주민 등 관련
 인권: 인간존엄/유엔 인권이사회/국제형사재판소/중동교회/팔레스타인/이스라엘 등 관련
- 3) 정의, 과학과 신앙, 기후변화, 치유봉사 사업: 지역 에큐메니칼 기구들/장학처/환경/기후/물/생태/보건/HIV 등 관련
- 4) 신학교육, 장학사업, 자료연구사업: 신학교육(보세이신학원)/평신도 교육/신학교육/도서관 등 관련
- 5)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사업: 종교간 대화/기독교론/대화 프로그램 등 관련
- 6) 홍보와 출판사업: 출판/웹사이트/통역 등 관련

세계교회협의회(WCC) 로고의 의미와 WCC의 시작은?

■ 교회는 십자가 형태인 돛대를 가지고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있는 배로 표현됩니다. 교회의 초대 기독교 상징들은 신앙과 일치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배의 상징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 부름 받는 이야기와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복음서 이야기에 기원이 있습니다.



■ 1937년 교회 지도자들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세우는 것을 동의했지만, 공식적인 조직은 제 2차 세계대전 발발로 147개 교회 대표들이 암스테르담에 WCC를 설립하기 위해 모일 때인 1948년 8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각 대륙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의 일치를 위해 WCC에 합류하였습니다. 신앙인들을 서로 분리한 고대의 단절을 넘어 새로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대전으로 인류가 극심한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던 20세기 초엽에 하나님 안에서 만물의 일치를 위하여 먼저 교회가 일치해야 함을 자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조직되어 '일치', '공공 증거', '기독교 봉사'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은?

■ ‘집, 가정’을 뜻하는 ‘오이코스’에서 파생된 오이쿠메네(oikoumene)라는 단어에서 에큐메니칼(ecumenical)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으며, “모든 생물이 거주하고 있는 온 땅”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희랍어로는, 사회를 형성함에 따른 종교, 철학, 그리고 정치적 행정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현대에서는 오이쿠메네는 하나님의 온 창조물의 일치를 포함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치유하는 목회에 대한 주체로써 모든 인간의 추구를 인정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해 놓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로 보는 개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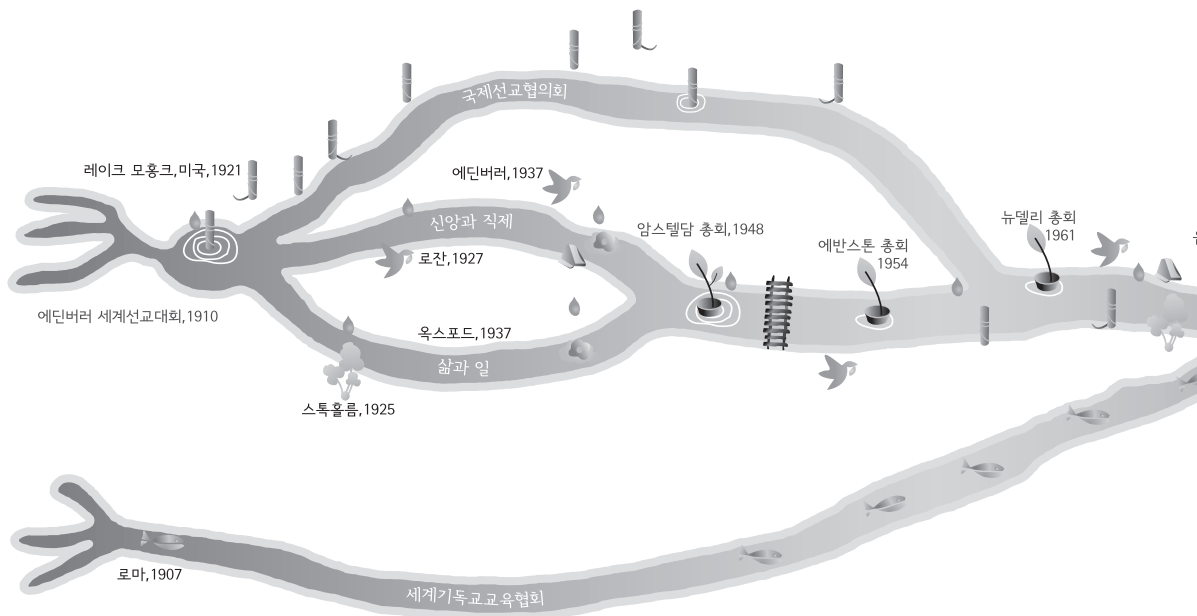
■ 오이쿠메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지향하는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개념이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한 교회의 신앙 고백적 응답입니다.

■ 현대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단의 범주를 넘어서 함께 기도하고 일하기 시작했을 때인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대 말경에 개척자적인 여러 운동들이 전 세계의 교회일치의 원인을 촉진시키기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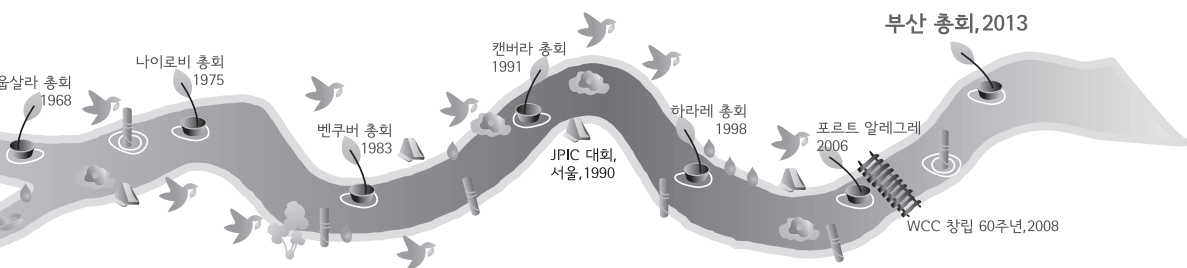
세계교회협의회(WCC) 형성과정은?

■ WCC의 역사를 보면 1937년 이미 신앙과 직제운동을 그리고 생명과 사회참여를 선교 사명으로 표방한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초교파 교회일치 운동의 총본부를 만들자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는 히틀러의 폴란드 침략으로 시작된 1939년의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5,500만의 하나님의 생명 희생을 치른 후 그 종말을 고하자 1937년의 결의는 다시 승계되어 1948년 147교단이 참가하여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8월 23일날 창립예배로써 WCC는 탄생이 되었습니다.

■ 1945년 6월의 유엔 창립보다 사실상 훨씬 먼저 WCC는 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합의 상징 기구인 WCC는 스위스 제네바에 각국에서 파견된 직원 200여명이 현재 일하고 있는 기구로 사람들은 유엔, 국제 노동기구, 국제 적십자사, 세계 보건기구와 함께 5대 국제기구라고 말합니다.



■ WCC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창립된 <세계교회협의회>로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1910년 Edinburgh에서 창립)와 <신앙과 직제 운동>(Faith and Order/1973년 Lausanne에서 창립)과 <사회봉사운동>(Life and Work/1925년 Stockholm에서 창립)의 선교, 교회일치, 사회봉사의 세 기둥이 모체가 되어 세계교회들의 연합체로 출범했고, 이 세 기둥은 지금까지도 WCC 안의 분과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벌 설명



신앙과 직제위원회 회의



세계선교대회



살과 봉사
(교회와 사회 세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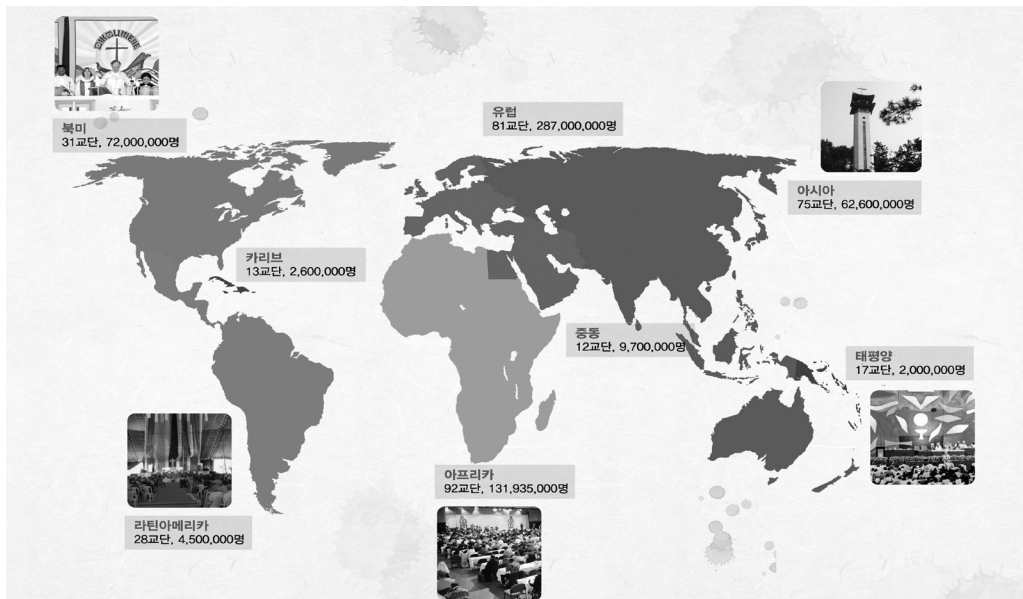
WCC 총회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회원교회는?

■ 오늘날 WCC 회원교회들은 전 세계를 거쳐 110개 이상의 더 많은 나라들과 지역들에 있는 5억 6천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대표하고, 세계의 대부분의 정교회 교회들과 많은 성공회, 침례교, 루터교, 감리교와 개혁신교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연합교회와 독립교회들을 포함하고 있는 349개 교회들, 교단들, 그리고 교회협의회들이 함께 모입니다. WCC는 개신교 전통의 교회와 정교회 전통의 교회가 연합해있으며(1961년부터), 아프리카 지역(27%), 유럽지역(23%), 아시아(21%) 및 기타 지역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로마가톨릭교회는 회원은 아니지만, WCC의 한 흐름인 <신앙과 직제 위원회> (Faith and Order)에는 1965년부터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WCC와 함께 밀접하게 일해 왔고 주요한 모든 WCC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 회의와 총회들에 대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이 WCC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교회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예배드리고 일하며, 일치, 예배, 사명과 섬김을 새롭게 촉진하며,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서로를 지지해주며, 서로 나누고 토론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비전은?

증거 (witness)

세계교회협의회는 평화와 정의, 하나님의 창조 보전을 위한 선교와 전도 사역에 힘씁니다.

a. 공적인 증거: 가난한 이들의 벗 되기

세계교회협의회는 교회가 사회적 불의와 폭력, 전쟁, 가난, 환경파괴에 대항하며, 선지자적 목소리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이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폭력극복10년 운동을 범세계적으로 전개하였고,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와 환경파괴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역사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세계교회협의회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합군의 파견을 유엔에 가장 먼저 권고하였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난민 구호와 전쟁 후 복구 사업을 위해 막대한 물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세계교회협의회는 1984년 일본 도잔소(Tozanso)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협의회”를 개최하여, 남과 북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이후로도 계속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지난 2009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에는 세계교회협의회 모든 회원교회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대를 다짐하였습니다.

b. 교육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반형성

세계교회협의회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 연구를 위한 에큐메니칼 교육기관을 보세이(Bossey)에 설립하여 수많은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세계 교회 지도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3세계의 많은 젊은 인재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어, 교회와 사회 발전의 기틀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신학과 운동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 자료들을 개발하고 관련 서적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c.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에베소서 4장 6절)는 말씀을 바탕으로 세계교회협의회는 다른 종교들과, 인류 공동체와,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와의 평화를 위한 열린 대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세계교회협의회는 다른 종교와 평화와 공존의 관계를 구축함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종교간의 대화는 타종교가 다수종교인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일치 (unity)

세계교회협의회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삶 속에서 가시적인 일치를 추구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삶을 공유하며, 신학적인 성찰을 하도록 돕습니다.

a. WCC와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 교회들과 다른 에큐메니칼 기구들과 함께 교회들의 가시적인 일치를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향한 에큐메니칼 비전을 제시하고, 신학적 연구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여성,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력 개발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b. 일치, 선교, 전도와 영성

세계교회협의회는 회원교회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며, 다양한 선교적 역량을 발전시켜 온 인류가 함께 조화로운 삶을 누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봉사 (Christian service)

세계교회협의회는 오늘날 세계의 소외된 이웃들과 약한 자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데 교회들과 함께 힘을 모읍니다.

a. 정의, 디아코니아와 창조질서에 대한 책임

WCC는 빈곤, 인권, 정의의 문제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사회참여’의 신학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빈민, 이주노동자, 소수 민족 등)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들을 위한 인적, 물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WCC 연 예산의 23% 이상이 이 분야의 선교 사업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WCC가 사회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디아코니아(사회봉사) 사역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물 부족 문제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세계에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역대 총회의 주제와 장소는?



■ 매 7년 내지 8년 마다 모이는 총회는 회원교회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데, 목회자와 평신도 여성과 남성, 청년의 동등한 참여로 개최됩니다. 총회는 6~7명의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단을 구성하고 중앙 위원회 위원들(150여명)을 선출하여 매년 회의를 열어 다음 총회 때까지의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제10차 총회에는 349개 회원교단으로부터 약 5,000여명의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WCC 총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회원들의 신앙고백을 확인하고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표명한다.
- 지난 회기동안 WCC가 회원교회들과 에큐메니칼 기구들과 함께 수행한 사업들을 보고하고 평가한다.
- 차기 회기 동안의 WCC 사업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결정한다.
- 인류평화와 복리증진에 관한 세계교회의 대응책을 모색한다.
- 총회기간 중에 에큐메니칼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예배, 기도모임, 이벤트, 전시회, 워크숍, 세미나, 강연회, 대화모임 등이 총회장 주변 곳곳에서 진행된다.
- WCC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150명의 중앙위원을 비롯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중앙위원은 국가별, 지역별로 선출 인원이 안배되어 있으며, 여성 50%, 평신도 50%, 청년 25%를 포함할 것을 인선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다. 중앙위원회 안에는 약 35명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있고, 산하에는 각종 사업위원회(Commissions)를 두어 분야별로 사업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 WCC 역대 총회(1~10차) 개최지와 주제

1차	1948 암스텔담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Man's Disorder and God's Design)
2차	1954 에반스톤	그리스도 - 세상의 희망 (Christ - The Hope of the World)
3차	1961 뉴델리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빛 (Jesus Christ - The Light of the World)
4차	1968 읍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Behold, I Make All Things New)
5차	1975 나이로비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되게 하신다 (Jesus Christ Frees and Unites)
6차	1983 밴쿠버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생명 (Jesus Christ - The Life of the World)
7차	1991 캔버라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Come, Holy Spirit - Renew the Whole Creation)
8차	1998 하라레	하나님께 돌아와 소망 중에 기뻐하라 (Turn to God - Rejoice in Hope)
9차	2006 포르토 알레그레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소서 (God, in your Grace, Transform the World)
10차	2013 부산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소서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의 개요와 의미는?



■ 주제선정 배경은?

한국과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와 기후 변화에 따른 생명의 위기를 맞아 한국교회가 ‘생명’을 총회 주제로 제안했고 세계교회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한국의 통일문제와 아시아 지역의 정의와 평화 문제를 적극 반영해 다수의 의견으로 이 같은 주제를 정하게 되었으며, 부산 총회를 계기로 아시아 교회들이 간직하고 있는 풍부한 생명의 원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 분쟁, 빈곤, 폭력, 불평등 등의 여러 위기 상황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 개최지 선정의 의의는?

이번 부산총회는 ‘선교와 식민지’라는 등식을 벗어난 신흥교회 지역에서 열리는 최초의 총회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매력과 사명이 동시에 작용되었습니다.

- 향후 세계의 지평이 동북아시아의 주도적 역할 속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일본을 포함한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점.
- 한국의 경우 짧은 선교와 교회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회성장과 선교열정이 크게 부각되었고, 그 현실을 현장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점.
- 다원화 시대에 들어선 지금 한국의 경우처럼 다양한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대결이나 전쟁 없이 평화적 공존 속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는 나라가 드물거나 거의 없다는 점.
- 에큐메니칼 운동이 복음주의나 오순절 전통의 교회들과 더불어 상호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켜서 가는 교회내적 에큐메니즘의 폭이 커가는 한국교회 상황을 세계교회가 유념하면서 격려하고 격려받고 싶은 점.

■ WCC 제10차 총회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제 10차 총회의 주제는 아시아 상황의 다양성과 생명을 돌보고 정의를 추구하려는 긴

급함에 대한 커져가는 지각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정의와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된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기도와 신앙의 선언 둘 다를 포함한다.

■ 주제성구는?

성경말씀 이사야 42:1~4

1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 부 제

- 믿음 안에서 함께 누리는 생명 : 교회 일치와 선교
- 소망 안에서 함께 누리는 생명: 세계의 정의, 평화, 화해
- 사랑 안에서 함께 누리는 생명: 공동의 미래

■ WCC 제10차 부산총회 로고는?



평화의새

평화를 온 땅에 충만하게 하고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나타냅니다.

작은나무

생명을 불러오고 우리의 희망을 발산케 하며 우리의 영이 솟아올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 위

사막과 마른 땅, 우리의 발목을 매고 있는 사슬을 의미합니다.

■ 총회 로고는 이사야 42장 1-4절과 모든 연안지역에 신실하게 정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택된 종, 지구 전체에 정의가 세워질 때 까지 꺾이지 않을 그 종의 사명으로 부터 영감을 받았다.

■ 이 로고는 생명이 바위와 사슬을 뚫고 땅으로부터 싹터 나와 위쪽을 향해 자라 온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오는 것을 묘사한다. 로고의 중앙에 있는 것은 세 마리의 새들의 날개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대지의 모든 골목으로 실어 나르는 생명의 나무의 이미지인데, 세상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제10차 부산총회의 의미는?

WCC 제10차 총회 개최지로 부산이 결정된 과정은?

■ 그동안 WCC 총회는 서구의 개신교 선교파송 교회지역(암스테르담, 에번스톤, 업살라, 밴쿠버, 캔버라)에서 열렸거나 아니면 서구 선교를 직접 받은 식민지 지역(뉴델리, 나이로비, 하라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총회는 ‘선교와 식민지’라는 등식을 벗어난 신흥교회 지역에서 열리는 최초의 총회인 셈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WCC의 거대한 한 축인 정교회(Orthodox Church)가 총회 유치를 원했으나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번 10차 총회 유치 과정에서도 정교회를 대변한 시리아 정교회와 한국 부산 중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앙위원들은 교회의 역사적 ‘뿌리’(Damascus)와 세계교회의 ‘내일’(Busan) 사이의 선택에서 극심한 고민과 갈등을 겪은 것이 사실이며 가까스로(71:58)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산이 선택된 이유는?

■ 부산 총회(10차)는 유치과정과 WCC의 투표 결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매력과 사명이 동시에 작용하여 결정되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 1) 총회의 경우 총대를 비롯하여 여러 다양한 자격의 참석자가 보통 7,000여명을 상회하기에 장소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있어서 부산이 월등한 평가를 받은 점.
- 2) 향후 세계의 지평이 동북아시아의 주도적 역할 속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일본을 포함한 한국의 / 한국교회의 미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점.
- 3) 한국의 경우 짧은 선교 / 교회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회성장과 선교열정이 크게 부각되었고, 그 현실을 현장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점.
- 4) 다문화 시대에 들어선 지금 한국의 경우처럼 다양한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대결이나 전쟁 없이 평화적 공존 속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는 나라가 드물거나 거의 없다는 점.
- 5) 에큐메니칼 운동이 복음주의나 오순절 전통의 교회들과 더불어 상호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켜서 가는 교회내적 에큐메니즘의 폭이 커가는 한국교회 상황을 세계교회가 유념하면서 격려하고 격려 받고 싶은 점.
- 6) 분단국가로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후원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또 기여하도록 함께 밀어주고 격려해야 한다는 점 등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제10차 총회 개최지 교회로서의 희망과 사명은?

■ WCC 총회는 지나간 7년 간의 신학, 신앙, 선교, 봉사의 사명을 분석하고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7년간의 방향과 역점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국교회가 향후 7년의 세계교회의 삶과 흐름의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회입니다.

■ 한국교회의 선교적 열정은 세계교회가 많이 알고 있지만, 세계 각 곳의 교회 지도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바람직한 선교 협력의 틀과 내용을 ‘한국 현장’에서 직접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세계선교의 공과 실, 과거와 미래를 가감 없이 평가받고 격려 받는 기회입니다.

■ 한국교회는 이번 총회를 준비하여 협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교회’로서만이 아니라 ‘세계적 지평의 교회’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21세기에 들어와 교회 차원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신학, 영성, 신앙생활, 기독교 윤리, 세계 속의 역할, 세계 선교와 봉사 등의 포괄적 영역에서 우물 안 개구리식의 편협한 제한성을 뛰어넘어 세계적, 보편적 가치와 삶의 틀을 스스로 배우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갱신을 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앞으로 2020년 차차기 총회가 열릴 때까지 ‘부산’으로 대표되는 총회의 삶의 여정에서 한국교회의 성숙한 신앙과 신앙고백적 열과 신학적 폭과 깊이가 재구성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총회원 및 총회 방문자 모두가 부산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방문하고 토론하고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의 땅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이제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이루어내야 하는 공동의 신앙 과제입니다.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비롯한 평화통일과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계교회들의 기도와 연대를 WCC 제10차 한국부산총회를 통하여 최대한 이끌어내야 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세계, 아시아, 한국에 끼친 영향과 공헌은?

(WCC 제네바 본부에서 아시아담당으로 일한 박경서박사님의 경험 중 일부를 나눕니다.)

☞ WCC의 세계평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 WCC가 평화신학을 고백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970년대 초의 남아프리카의 400여 년 간의 백인들의 흑인에 관한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WCC가 서구 교회들을 동원 그 나라들의 남아프리카에 대한 금융 송금을 금지 시키면서 백인 정부를 곤경에 빠지게 하여 결국 흑인차별을 끝내고 성공한 Program for Combat Racism (PCR) 프로그램이 생각납니다.

■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로부터 흑인 지하세력에 돈을 대는 WCC는 좌파라고 모함을 당한 바도 있었으나, 1984년의 당시 중앙위원이었던 그리고 후에 남아공 NCC 총무였던 데스문드 투투 주교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다. 또 26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흑백 공동 정부 최초 대통령으로 추대된 넬슨 만델라가 1998년 WCC 제 8차 총회가 열린 짐바부웨의 주제 강사 중 한분이 되어 하라레 총회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흑백 공동체의 차별 없는 사회 그리고 진실은 밝히자! 그러나, 이 진실은 백인을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 화해하기 위함이다.” 라는 만델라 대통령과 투투 주교의 이 신앙 고백은 WCC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선교의 큰 방향이었습니다.

■ 이는 결국 인류 역사상 이런 차별을 영구히 없애는데 기여했으며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세계가 축하하는 큰 물결 속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잘못을 시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 되었으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세계 평화를 위한 시도입니다.

■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4년 남미 과테말라 원주민 지도자인 리고베르타 멘추여사가 있습니다. 원주민의 권리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위해 평생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투쟁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1990년부터 우리 WCC가 라틴 아메리카국장이 중심되어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이 분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 수상케 됩니다. 가톨릭 신자인 그녀가 오슬로 수상직후 다음날 제네바 WCC에 와서 같이 감사의 예

배를 드렸습니다. 여성 원주민의 권리는 세계평화에 직결 된다는 신앙 고백에서 이 일이 추진되었습니다.

■ 저의 주선으로 2007년 WCC 총무 및 간부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뉴욕에서 만나 두 기관의 협력을 다짐했고 반 총장은 2008년 WCC 본부를 방문하여 평화를 위한 두 기관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아웅산 수지여사와 만났던 이야기와 WCC를 통해 아시아에 공헌한 일들을 들려주세요?

■ 제네바 재임 중 특히 아시아의 교회를 위한 몇 가지 선교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가 아웅산 수지여사의 미얀마민주화운동을 도운 것입니다. 2년에 걸친 어려운 군부를 설득 끝에 저는 수지여사를 2번 만났습니다. 2번째는 군부의 허가 취소로 문전에서 저지를 당했지만 첫 번째의 회동은 3시간에 걸친 오랜 만남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여사의 가택 연금중인 대문에서 저는 20장의 근접 사진을 미얀마 군부에 찍힌 다음 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20장의 사진은 1979년 4월 어느 날 제가 부원장으로 있었던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중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도 10장밖에 찍히지 않았는데 1995년 11월의 미얀마 군부는 우리보다 더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 저는 지금도 다음과 같은 그녀의 신앙 고백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박 선생이 기독교 지도자로서 우리 집에 방문한 첫 번째 손님입니다. 미얀마에는 많은 교회가 WCC회 원교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지도자들은 한 번도 연금중인 저를 찾아오지 않는군요. 그분들 만나시면 교회의 직분은 제사장적인 것과 예언자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밤 그분들을 만나시면 제사장 직분수행은 위험 하지도 않고 군대도 허락하니 저를 방문 좀 하라고 권하십시오”.

■ “저는 2살 때 독실한 불교의 신자였던 저의 아버지가 독립된 조국을 보지 못한 채 정적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그녀가 초대 인도주재 미얀마대사로 근무 중 저는 고등학생으로써 1991년 11월의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 3차 WCC 총회가 개최 된 것을 어린 소녀로써 참가하여 배웠습니다. 그때 그 총회에서 당선된 중앙위원들을 어머니가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 파티에 심부름을 했습니다. 아마 WCC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기독교 내에서만 하시지요? 저는 제 몸에 50%의 아버지의 불교 피와 50%의 기독교의 피가 흐르니 어머니는 늘 너는 불교 기독교 그리고 여타의 종교를 아울러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 그녀의 남편 마이클 아리스는 옥스퍼드대학 교수로써 1989년 이후 서로 헤어져 살다가 몇 년 전 전립선암으로 런던에서 사경을 헤멜 때 미얀마 군부의 출국해서 임종을 보라는 회유에도 이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내가 내 조국을 떠나면 군부는 나의 재임

국을 금지할게 뻔 한데 입국 못하면 나의 신앙인 미얀마의 평화 민주주의 비폭력 운동은 어찌 되겠는가? 나는 나의 남편을 천국에서 만나겠다.” 하는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나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그녀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 평화운동에 동참하고 제가 인권대사로 있을 때 그녀의 부탁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 NLD회원 21명중 11명을 유엔 난민지위 획득을 주선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서울을 기점으로 자유롭게 세계를 오가면서 민주주의 평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제 나름 데로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것을 지금도 큰 보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 또, WCC 아시아 담당으로 있으면서, 캄보디아의 대인지뢰 제거 프로그램,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장기 농업 개발 프로그램, 스리랑카의 평화정착, 인도의 빈곤 해결, 방글라데시의 홍수예방 프로그램 등 아시아의 선교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광주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기위해 총탄에 맞아 폐허가 된 광주 YWCA 건축에 기여 건물을 완공시킨 것 등은 여러 예 중 하나입니다.

☞ WCC의 남녀 청년 미래 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습니까?

■ 현재, WCC는 남녀 청년 미래 지도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가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회원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 첫째가 WCC 인턴 프로그램입니다. 일 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원자가 사전에 자기가 연구하고 체험하고 싶은 분야를 적어 매년 3월 말까지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혹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결정되는데 이 인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모인 남녀 친구들을 사귀면서 분야별로 WCC 프로그램에 참가 준 Staff로써 일할 수 있는 경험은 우리 신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WCC도 알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 지도력 개발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 둘째는 청년 Steward 프로그램입니다. WCC 청년부에서 관장하는 이 프로그램은 중앙 위원회, 프로그램 위원회, 실행 위원회 총회 등에서 스튜어드로 봉사하면서 배우는 프로그램이지요. 이번 부산 총회를 시작으로 한국 청년 남녀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도움을 주고 받았으면 합니다.

■ 셋째가 Echos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브라질 포트 알레그레 제 9차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한 제도인데요. 청년들의 비전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WCC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총 25명의 젊은 청년 남녀 대표로 구성되어있어서 명실공히 살아있는 청년들의 싱크탱크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은 WCC의 미래에 활력을 넣고 있으며 어른들의 잘못하면 고착화 되려는 선교의 사고에 참신한 청년들의 고뇌와 바람을 그들의 비전을 통해서

불어 넣고 서로 배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WCC에 여성참여도는 어떻습니까?

■ 여성에 대한 WCC의 집념은 말할 필요 없이 대단합니다. 특히 1971년 성공회, 회원교회의 교단들이 교회내의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같은 해 오토독스(정교회)의 3개 교단 즉 Greek, Oriental, Russia 정교회가 같이 WCC에 가입하면서 서구의 개신교와 정교회사이에 여성의 동등 참여 문제가 많은 찬반 토론을 유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배우고 비판하면서 청년의 여성의 그리고 정교회의 지분이 각각 성직자 그리고 남성의 기존의 지분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면서 상당한 여성 청년 정교회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WCC 회의에 남녀의 결정과정의 참여가 약 42 대 58정도로 보여 집니다.

■ 오늘날의 WCC의 의사 결정구조에 남성 성직자는 약간의 지분만 갖지만 여성, 청년, 평신도, 지체부자유한 대표권이 어느 국제기구 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 청년은 절반인 50%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번 부산 총회를 계기로 교회내의 전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 청년 평신도의 지분을 남성 성직자의 차지와 동등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 이 주장의 신학적 배경에는 하나님 창조의 조화의 섭리를 신앙 고백으로 받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대치를 조장해서 지분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평화적인 균형을 신학의 배경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WCC는 영어로 INCLUSIVE COMMUNITY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의 여성 남성의 평등한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그리는 것입니다. WCC의 홈 페이지에는 동영상의 교제로 WCC 여성부에서 만들어 낸 동영상교재가 모든 회원교회에 전달되고 있는 점이 특히 눈에 띄입니다. 이 동영상은 남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인 봉갈리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봉갈리는 자라면서 직접 폭력을 경험한 희생자로서 성년이 되어서 결혼 후 가정에서부터 폭력 근절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부인의 어려운 겹겹의 일을 남편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육아 빨래에서부터 시작 봉갈리는 남편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창조합니다.

■ 이 폭력 근절은 자기의 가정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고 있는 폭력이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퍼진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평화와 여성 평등은 가정 폭력 근절에서 시작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교회의 목회 중에 전달하라는 권고까지 담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이웃의 평화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의사 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이끌고 그것이 사회로, 국가로, 그리고 지역으로, 세계로 전달 되게 하는 것입니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WCC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일본 도산소에서 시작(북녘 교회대표 불참) 되어 스위스 제네바 근교인 그리온에서 개최된 WCC 국제국 후에 아시아국으로 옮겨져 실천된 그리온 1차 2차 3차 프로그램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 1986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이 첫 남북의 모임에는 미국, 옛 소련, 동독, 서독,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세계의 대표들이 이 남북 교회의 모임을 함께 했습니다. 뽕뽕 얼어붙어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화해와 평화의 신앙 고백으로 준비된 이 국제회의는 WCC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988년 제 2차 1990년 제 3차 1992년 희년의 제 4차에서 우리는 실로 많은 화해와 평화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 했습니다. 8.15직전 주일을 평화통일 기도의 주일로 선포 전 세계가 같이 한반도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든지 1989년 모스크바 중앙 회의에서 남북 교회가 세계교회 앞에서 서로 겨안고 화해의 상징을 연출한 것들은 오늘날의 남북 직접 대화와 나눔의 선교의 물꼬를 WCC가 텃다고 봐야합니다. 당시 NCC총무이신 권호경 목사님의 봉수교회에서 설교 김일성 주석과 남북교회 대표들이 같이 대화하면서 북녘의 교회 위상을 높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 1996년 어느 날 함경북도 함흥의 독립병원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사기를 전기 곤로에 물을 끓이는 것부터 우리나라의 1950년대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도착하니 유리창 사이를 두고 내부에서 수술하는 광경을 보여주면서 북녘의 의술을 한층 뽐내는 중 마침 수술이 성공 되었다고 의사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 환자가 몇분 후 제 눈앞에서 혈압을 높이는 약이 떨어져서 죽는 것을 목격 후 저와 독일의 Diakonisches Werk의 Henschle 여사는 독재는 밉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은 살리자는 의견으로 당시에 멈춰있는 평양 제약공장을 300만 불 프로젝트로 가동 이곳에서 지금도 WHO가 확인하는 약 특히 진통제, 혈압 올리는 약, 종합비타민 등을 지금도 생산 북녘전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앙리듀낭의 인도주의 원칙의 실천으로 WCC는 지금도 세계각지에서 평화를 위한 수천만 불에 달하는 구체적인 구호를 펼치고 있습니다.

■ 독일의 베를린에서 출발 모스크바 중국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는 평화열차 행진프로그램은 만일의 경우 북녘 땅을 관통 못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호소하는 신앙 고백이 될 것이며 WCC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1953년 7월 27일의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전 세계 교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리라 확신 합니다.

☞ WCC가 한국과 한국교회에 공헌한 일들이 있습니까?

■ 한국 NCC의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을 돕는 NCC 전체예산을 매년 평균 80만 불씩 1982년부터 1999년까지 도운 것은 우리민족의 평화 인권운동 여성운동에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운동을 돕기 위해 독일의 EZZE를 동원 교회여성 연합회, 여성 신학자회 등등의 많은 단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일이 있습니다. 이우정 교수님 그리고 김정의 목사님을 도와서 여성 수감자 형기 만료 후 재활빌딩을 지어주었습니다. 기독교 사회운동연합의 서대문 건물, 부산 영락 상업학교, 연대 이공대 실험실, 이대 과학관 등의 건물들은 WCC의 추천 하에 서구교회의 사랑의 결실들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WCC의 신앙고백이 의심스럽다?

■ WCC는 헌장 제1조에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Fellowship, Koinonia)이다.”라고 그 신앙적 근거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WCC는 같은 헌장에서 “한 믿음, 한 성례전적 교제 안에서 가시적 일치, 예배와 공동생활, 세상을 향해 함께 증언하고 봉사함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과 기능을 밝히고 있습니다. WCC는 이처럼 성경,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위에 굳게 선 세계교회 연합체입니다. WCC가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한 세계교회의 공동 노력입니다.

■ WCC에는 기독교를 사칭하는 온갖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단체도 들어와 있지 않느냐고 극단적인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WCC의 회원교단이 되는 과정만 살펴봐도 드러납니다. WCC의 회원이 되려면 먼저 헌장 제1조에 해당하는 교단의 신앙고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앙위원회 회원영입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통과되면 해당 국가에 이미 회원이 되어 있는 교단에 신청교단에 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만일 입회신청을 한 교단이 정당한 교단이 아니라면 WCC는 결코 그 교단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WCC의 신앙고백은 분명합니다.

2. WCC는 선교에는 관심이 없다?

■ 1910년 에든버러(Edinburgh)에서 선교와 일치를 위해 전 세계교회가 함께 모인 세계선교대회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직접적 배경인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도 WCC안에는 에든버러 대회의 전통을 이어오는 “선교와 전도위원회”(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가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무국에는 ‘선교와 전도 일치국’이 설치되어 세계교회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지원과 협력, 선교신학의 성찰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WCC 선교와 전도위원회는 복음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증언되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WCC는 총회와 별도로 총회만큼이나 큰 규모로 진행되는 양대 대회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독교 교리를 다루는 신앙과 직제 대회이고 다른 하나가 선교를 다루는 선교와 전도 대회입니다. 2013년 부산총회에서도 새로운 에큐메니칼 선교선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3. WCC는 용공이다?

■ WCC는 교회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념도 지향한 적이 없습니다. WCC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WCC는 냉전시대 때 공산체제 속에 있는 교회도 회원교회로 받아들였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정치체제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용공이라고 한다면 그 주장은 복음을 이념 아래에 두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은 공산체제 아래 있던 교회들의 보존을 위해 WCC가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 노력으로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북한 교회가 세계교회와 연결되는 데도 WCC가 정치적 장벽을 무릅쓰고 교제를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편, WCC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WCC중앙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유엔이 세계질서의 도구로서 이 침략에 맞서서 신속한 결정을 취해 줄 것과 모든 회원 국가가 지지하는 경찰 조치를 허락해 줄 것을 권고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WCC의 용공시비는 인간의 이념의 산물입니다.

4. WCC는 사회선교에만 관심이 있다?

■ WCC안에는 선교와 전도, 기독교교육 이외에 거대한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과 직제’로 신앙과 일치를 강조하는 면이고, 다른 하나는 ‘삶과 일’로서 복음의 사회적 증언을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한국에는 WCC가 70, 80년대의 사회 상황과 관련해 인권과 민주화 등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WCC의 사회선교적 측면만 부각되어 WCC는 사회선교에만 관심이 있다고 알려진 듯합니다. 그러나 WCC안에는 신앙과 일치를 강조하는 흐름과 복음의 사회적 증언을 강조하는 흐름이 팽팽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선교에도 두 흐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인권이나 민주화 같은 사회적 증언이고 또 하나의 흐름은 사회봉사(Diakonia)입니다. WCC의 사회선교에는 봉사의 면도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5. WCC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 사실 WCC의 신학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WCC는 회원교회들의 다양한 신학이 서로 대화하고 조정하고 공통의 신학적 견해를 찾아가는 문자 그대로 협의체(Council)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WCC 고유의 신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WCC안에는 여러 신학노선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존재하고 엄청나게 보수주의적 신학도 존재합니다. 정교회의 신학은 한국의 보수신학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회원교회 중에는 복음주의 교회, 오순절 교회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6. WCC는 가시적 일치를 주장한다?

■ WCC가 추구하는 그 가시적 일치란 외형적 일치 혹은 구조적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WCC가 추구하는 가시적 일치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일치를 가시화 하자는 것이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하나가 되어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하셨고 그 목적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선교와 일치의 부름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모태가 된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WCC가 추구하는 가시적 일치는 이런 선교적 목적 때문이지 결코 세계 교회의 외형적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7. WCC는 다원주의다?

■ WCC종교 간의 교리를 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WCC 밖에 있는 로마가톨릭 교회도 그렇지만 WCC 안에 있는 양대 교회, 즉 정교회와 개신교도 결코 서로의 교리를 섞을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교리적 일치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물며 종교 간의 교리를 섞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WCC는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함께 독립선언을 했듯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류의 화해를 위한 인류공동의 과제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협력과 다원주의는 다릅니다. WCC가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선교를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타종교가 다수종교인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인류의 평화나 생태계 보호와 같은 인류 공동의 과제를 위한 종교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종교 간에 협력을 하는 모습을 세속사회가 종교에 대해 깊은 신뢰를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 관련 자료 소개



1. 홈페이지 자료

- 1) 한국기독교장로회
www.prok.org → 메인 화면 WCC 클릭 → WCC 자료실
- 2) WCC제10차한국준비위원회
www.wcc2013.kr → 자료마당
- 3) WCC 공식 영문 홈페이지
www.oikoumene.org

2. WCC 주일예배 설교 자료집(WCC 회원교단 제작)-노회 발송

WCC 회원교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WCC 제10차 총회를 위한 기도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7개의 설교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 자료실)

3. WCC 제10차 총회를 위한 기도회-예배안 · 대표기도문 · 설교자료

본 자료집 안에 WCC 제10차 총회를 위한 기도주일이나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예배안·대표기도문·설교자료를 참고자료로 실었습니다. 예배에 사용될 수 있는 성가곡과 찬양곡들은 총회 홈페이지 WCC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교회나 노회 및 각종 모임에 사용하실 수 있으니, 필요시 수정 가능합니다.

(총회 홈페이지자료실)

4. WCC 제10차 부산 총회 안내-PPT자료

WCC와 WCC 제10차 총회에 대한 소개와 안내 등 특강을 위한 PPT자료입니다.

(총회 홈페이지자료실)